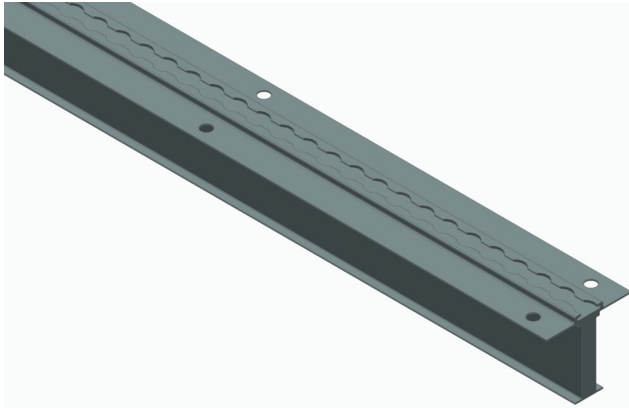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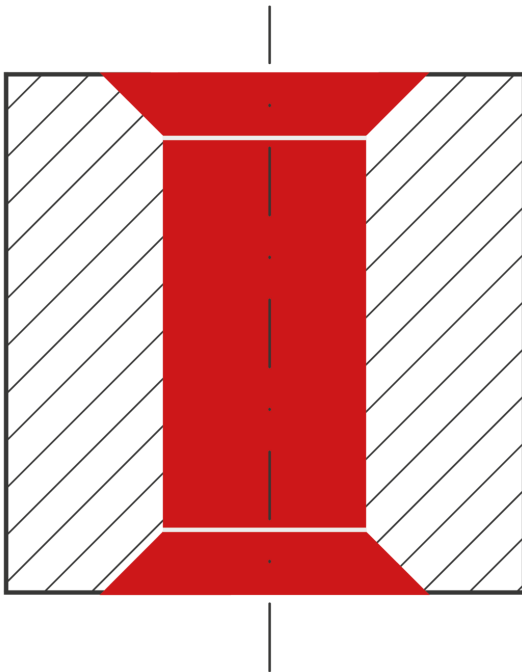




항공기 바닥 몰딩

한 번의 공정으로 드릴링과 챔퍼 작업을 자동화합니다.



고객용 애플리케이션

고객사는 그동안 3단계에 걸쳐 보어를 드릴하고 양쪽 면을 챔퍼로 모따기해야 했습니다. 고객사는 생산 시간을 최소화하고 수동 디버링 작업을 피하기 위해, 공구 교체 없이 한 번의 공정으로 보어를 생산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.



해결방법

HEULE의 해결방법은 한 번의 공정이면 드릴링과 디버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VEX-S 공구입니다.

고객 혜택

- 세 가지 공정 단계를 하나의 작업 단계로 통합하여 상당한 시간 절약 효과
- 공구 교체가 필요 없음
- 수동 디버링이 필요 없음
- 공정 안정성 향상
- 공정 시간 **50%** 단축